

증심사서 출·퇴근하며 힐링해볼까

전국 첫 출퇴근 템플스테이 기획
당일형·휴식형·맞춤형·체험형...
차담·명상 등 마련 이달부터 운영

50명 수용 템플스테이 전용 3개동 신축
산사 음암회, 생태체험 프로도 진행



증심사가 최근 신축한 템플스테이 3개동.

860년 창건된 증심사(주지 연광)는 무등산과 더불어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한 공간이다. 무등산 나지막한 자락에 자리잡은 증심사는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곳이다.

증심사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묵으며 본인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무등산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인 까닭에 인기도 많다. 지난 2008년 광주 최초로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업로 지정된 이래 2013년 556명, 2014년 860명, 2015년 1173명, 2016년 2113명 등 매년 두 배 가량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다.

증심사가 최근 템플스테이 건물을 신축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는다.

그동안 증심사에는 템플스테이 건물이

자인당(3개실 40㎡ 규모) 1동만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총 예산 15억원을 투입, 템플스테이 전용관 3동을 추가해 이번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찰 바로 밑에 연경당(3개실 80㎡ 규모·총 수용인원 12명), 해경당(4개실 72㎡·12명), 자경당(4개실 72㎡·12명) 등 전용관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자인당도 그대로 운영한다.

또한 연경당 지하(명칭 미정)에 동시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 규모 공간도 조성했다. 숙박 뿐 아니라 차를 마시고 프로제션을 설치해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심과 멀지 않는 거리를 활용한 독특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직장인·일반인 대상 ‘출퇴근 템플스테이’를 기

획했다. 사찰에서 5박6일간 머물며 스님과 차담(茶談), 쫓돌 명상, 포행(산책) 등 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과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일정은 일요일 오후 4시 입소해 금요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다. 밤 9시 취침, 새벽 4시에 기상을 한 후 새벽 예불, 명상·108배, 아침 공양을 하고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다시 입소하는 방식이다. 퇴근 이후에는 저녁 공양을 마치고 스님과 대화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19일부터 정식 운영하며 참가비는 20만원으로 사전에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나 단체는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당일형·휴식형·체험형·맞춤형(단체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당일형(참가비 1만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스님과의 차담, 나만의 소장품 만들기

(컵·염주 등) 등으로 구성된다.

휴식형(1박2일·성인 5만원)은 오후 4시 입소, 다음날 낮 12시에 귀가하며 특별한 일정 없이 원하는 대로 쉴 수 있다. 체험형(1박2일·성인 7만원)은 예불·108배·운력(청소)·포행 등 스님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그밖에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은 레크레이션, 심리치료, 음악공연 등 다채롭게 일정을 꾸밀 수 있다.

증심사는 앞으로 건물 앞 공간에서 ‘음악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도 열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jeungsimsa.templestay.com)나 전화(062-226-0107)로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차량 이용자는 증심사 주차장까지 들어올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가족 음악회 ‘리브 콘서트’

14일 광주문예회관
성재창씨 트럼펫 협연



성재창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화이트 데이를 맞아 가족 음악회 ‘리브 콘서트’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 곡은 ‘솔베이그의 노래’, ‘아라비아의 춤’ 등으로 잘 알려진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2번 작품 55’다. 입센의 작품 ‘페르귄트’에 곡을 붙인 이 작품은 부와 모험을 좇아 유랑하는 페르귄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어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와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들려준다. 아름답고 애조

민 멜로디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두 사람의

의 슬프지만, 뜨거웠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트럼펫 협연도 만날 수 있다. 트럼펫 주자 성재창씨는 아르투니안의 ‘트럼펫 협주곡’을 연주한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한 성씨는 현재 충남대 관현악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특별 이벤트로 관객 중 한명을 선정, 콘서트에서 사랑의 사연을 소개해 주며 관객들에 장미꽃도 증정한다. 티켓 가격 전석 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시민과 함께 흥매화 그리기’

광주시립미술관이 10일 ‘시민과 함께 하는 흥매화 그리기 행사’를 중외공원 내 흥매화 부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다.

이번 행사는 진경매화를 그리는 전업 작가들이 참여해, 일반시민들, 미술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흥매화를 그린다. 행사를 이끌어갈 전업작가는 황순철·

류재웅·정경래·이선복·이창훈·오광섭·위진수·장용림·정선휘·조규철, 조현수, 허임석, 노여운씨 등이다. 미술관 문화센터 수재화강좌 회원들, 광주 소재 미술전공 학생들도 참여한다.

일반인도 개인 회화를 준비 해오면 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41. /김용희기자 kimyh@

전통문화관 ‘가야금과 떠나는 예술여행’

토요상설공연...내일 서석당서 선영숙 명인 등 초청

‘무등산 자락서 낭랑한 가야금 소리를 듣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선영숙 명인을 초청, ‘가야금과 떠나는 예술여행’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지방에서 연주되는 풍류를 향 제풍류(민간풍류)로 연주한다. 구례향제 줄풍류(사진) 중 ‘염불타령’을 시작으로 가야금 즉흥연주와 함께 산조춤을 추면서 한과 액을 풀어내는 ‘춤과 함께 동행’을 선보인다. 또 가곡 ‘우락’과 ‘25년의 뱃노래 2중주’, 판소리 더듬의 목직함이 매력적인

‘김병호류 짧은 산조’가 펼쳐진다. 마지막 곡은 단가 ‘어부사시사’에 선영숙 명인이 가사를 입힌 작품을 연주한다.

선영숙 명인은 2010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47호 가야금산조 김병호류로 지정됐으며 각종 대회에 수상,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 명인이다.

이번 공연에는 신상철, 선영숙, 이애숙, 김은선, 임하정, 손준영, 구경화, 정유경, 이소정, 정승희, 김아람 씨 등이 출연한다. 무료 공연.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미디어아트 특화 레지던스 스튜디오 오 6개실에 입주할 작가를 공모한다. 입주작가 6명(팀)에게는 오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창작공간, 창작지원금,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공공요금은 자부담이며 매달 15일 이상

입주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bolamk@naver.com)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 (062) 222-0072, 226-5800
(구, 기림박물관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크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